




안전,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

한화종합화학(주) 부강공장
권 병 교 과장

정해년(丁亥年) 새해가 밝았다. 올해가 벌써 2007년이 라니, 참 시간의 빠름이 화살과 같다고 한 말이 절로 실감이 난다. 검붉은 구름 사이로 서서히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, 나는 새해에 첫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(주) 권병교 과장을 만나기 위해 입김을 호호 불며 충북 청원군으로 향했다.

한 화종합화학(주)부강공장의 권병교 과장은 63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. 서울 올림픽이 한참이던, 88년 28살의 나이로 이곳에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. 결코 짧지 않은 세월, 돌아보면 엇그제 같은데 하며 옛 기억을 떠올려 안전과의 인연을 말한다.

그의 전공은 원래 기계공학이었다. 대학 시절 산업안전법이 강화되어갈 즈음,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서 그는 안전과의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. 입사 후 바로 위험예지 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갔다.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, 소방·고압가스 등 인허가 수행 등을 무난히 마쳤을 때, 해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우리 일터에 안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. 그러던 98년 어느 날, 당직을 서며 공장을 지키던 그에게 한 근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소식을 전했다. 네 살박이 아들을 둔 34세의 한 가장은 순간의 실수로 고인이 되어버렸다. 장례식장에서 가련한 한 여인의 통곡소리와 철없이 뛰어노는 그의 아들을 보며 끝도 없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한 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안면 마비까지 경험하였지만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는 동료들의 위로에 힘을 얻어 새출발을 다짐했다. 그로부터 다시 8년여가 지난 지금,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술선수범하는 그에게 옛 기억은 빠져린 고흠으로 남아 있다.

안전은 자신과의 약속이며,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, 사고의 위험은 이미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권병교 과장, 그 누구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 말한다.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고 모든 한화종합화학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새해 희망이다.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. 

〈임재근 기자〉